박양우 문체부장관, 금산사 예방

월주 스님, 불교관련 사안 정부차원 관심 당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7월 29일 김제 금산사를 방문, 월주 스님과 성우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월주 스님은 10.27법난기념관 건립과 불교문화재의 보존 관리 등 불교관련 사안에 정부차원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사진 왼쪽부터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박양우 장관, 조실 월주 스님, 정재숙 청장.

박양우 장관과 정재숙 청장은 성우 스님의 안내로 금산사 미륵전(국보 제62호), 방등계단(보물 제26호) 등 금산사 문화재를 둘러본 후 뇌묵처영기념관에서 진행 중인 월주 스님의 지구촌공생회 15주년 특별전시회를 관람했다.

박양우 장관은 전시회를 둘러본 후 "송월주 스님의 한국불교발전과 민주화 그리고 자비행 등 사회곳곳에 끼치신 공적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고 방명록에 소회를 남겼다.

이날 환담에는 이우성 문체부종무실장과 최보근 문화재청정책국장이 배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처님 사랑으로 마음 키워요"

창원 성주사, 제32차 보리수 템플스테이 개최

130여 명의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마음, 불성으로 행복을 찾는 템플스테이가 진행됐다.



창원 성주사(주지 흥교)는 7월 27~28일 경내에서 '제32회 성주사 보리수 템플스테이 마음愛 부처님'을 개최했다. 성주사 템플스테이 입재식에는 원재 스님과 지도법사 보문 스님을 비롯해 어린이 13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

개회식에서 원재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어린이 여러분의 밝고 씩씩한 모습을 보니 반갑다. 좋은 추억 많이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보리수 템플스테이는 △입재식 △팀빌딩 △산사에서 즐기는 물놀이 △우리는 하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성주사 보리수 템플스테이는 어린이 인성 함양과 공감능력을 키우고 건강하고 밝은 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차 한 잔으로 전하는 자비

이웃을생각하는모임, 8월 28일 이웃돕기 일일찻집

김해 나눔 공동체, 이웃을생각하는모임이 차 한 잔에 자비를 담는 따뜻한 일일 찻집을 개최한다.

이웃을생각하는모임(회장 혜진 · 이하 이생모)은 8월 28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시 인제로에 위치한 카페달리아에서 '이웃돕기 일일찻집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전달식은 △경과보고 △내빈소개 △임원소개 △환영사 △격려사 △축사 △장학금 및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회장 혜진 스님은 "이 세상은 각자의 복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모든 존재는 소중한 인연으로 연결된 한 가족"이라며 "바쁜 연말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이웃돕기를 실천하자는 생각으로 추석을 앞두고 일일찻집을 개최한다"고 관심을 독려했다.

이생모는 2012년 2월 지역 스님과 재가자들이 합심해 창단했다. 이후 아동급식비 지원, 장학금, 군부대 후원, 청소년을 위한 사업, 국내외 자비실천, 해외포교 등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문화공간 쿠무다, 포교 새 장 연다

신축건물 기공… 2020년까지 8층 규모로 공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교문화 포교 1번지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동하는 쿠무다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 송정 바다 앞에 지상 8층 높이의 문화예술공간을 기획, 준공할 예정이다. 쿠무다는 이에 앞서 기공식을 개최하고 문화 포교에 함께 관심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복합문화공간 쿠무다(대표 주석)는 7월 30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신축 기공식을 봉행했다. 기공식은 △환영사 △경과보고 △쿠무다의 걸어온 길 영상시청 △인사말 △치사 △축사 △쿠무다 미래 영상시청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는 만찬 및 축하음악회가 열려 문화공간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치사에서 前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교를 일으켜야 한다"며 "쿠무다 불사는 한국불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이러한 불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처럼 구태의연한 사고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된다"고 격려했다.

쿠무다 대표 주석 스님은 "시대에 맞는 언어로 포교방향을 고민하고 현대인에 맞는 키워드를 생각하며 쿠무다를 시작했다. 문화 포교를 지원하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신축된 복합문화공간 쿠무다 준공식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레스토랑 · 공연시설 · 법당 등
복합문화공간 면모 살려 기획
총 공사비용만 100억 원 소요
7월 30일 기공식 및 음악회

쿠무다 신도를 대표해 박대건 신도회장은 "오늘 함께 동참해주신 모든 사부대중 원력으로 원만히 회향할 것을 믿는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복합문화공간 쿠무다는 2013년 12월 문을 열었으며 갤러리를 비롯해 북카페, 법당으로 새로운 불교문화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후 많은 대중이 참여하는 문화행사에 공간 제약이 많아 새로운 공간 불사를 발원했으며, 2017년 1월 40억 원으로 현 신축부지를 매입했다. 2017년 9월 기존 건축물 철거에 착수했으며 그해 11월 설계시안을 만들고, 2018년 11월 건축허가를 받아 2019년 3월 착공했다. 공사비용은 외부 시설 70억 원과 내부 시설 30억 원으로 총 1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준공은 2020년 10월 마무리된다.



복합문화공간 쿠무다는 7월 30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신축 기공식을 봉행했다. 기공식에서 대표 주석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복합문화공간 쿠무다는 해운대구 송정동 436-4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2층, 지상 8층에 대지면적 568.5㎡(172평), 연면적 2,838.98㎡(860평) 규모다. 건물은 △지하 2층 레스토랑 △지하 1층 문화예술 공연시설 및 명상센터(250석 규모) △1층 주차장 및 수변휴게시설 △2층 프렌치 레스토랑 △3층 카페 쿠무다 △4층 평생문화교육센터 △5층 문화교육센터 △6~8층 힐링빌리지 △옥상 바다법당 및 바다정원으로 신축될 예정이다.

한편 기공식에는 前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BBS부산불교방송사장 수불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원허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을 비롯해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김광호 해운대경찰서장, 백용기 거붕그룹 회장 등 내빈 300여 명이 동참했다.

지리산자락 빗소리도 '和音' 되다

산청 문수암 제3회 산사음악회
대중 익숙한 클래식으로 준비

해가 져 어둑한 지리산 골짜기에 비가 고요히 내렸다. 사찰에서 귀에 익숙한 엘가 사랑의 인사가 연주되고 세레나데가 연이어 흘러나왔다. 비가 내리자 대중은 우산을 펼쳐들었고, 우산에 부딪히는 빗소리마저 화음이 됐다.


지리산 산청 문수암이 제3회 문수암 산사음악회를 7월 27일 경내 마당에서 진행했다.

지리산 산청 문수암(주지 기영)이 제3회 문수암 산사음악회를 7월 27일 경내 마당에서 진행했다.

문수암 주지 기영 스님은 산사음악회에 불교음악을 고집하지 않았다. 종교를 초월해 자연에서 쉼을 얻고 음악을 통해 힐링을 선사하는 것, 그 자체도 불교정신이란 뜻에서다. 익숙한 곡을 선정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산사음악회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와 세레나데로 시작했다. 첫 번째 무대는 꼬니-니꼬 체임버앙상블이 장식했으며, 신화수 바리톤이 헨델의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와 그리운 마음을 불러 지리산 자락에 중저음의 멋진 목소리를 선사했다. 꼬니-니꼬 체임버앙상블의 아리아와 루마니안 춤곡이 이어졌고, 창원남성합창단이 내 마음 그 깊은 곳에와 광야에서를 불러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 무대는 임동창 피아니스트가 '1300년의 사랑이야기' 시리즈 중 4월의 신부, 효재의 꿈, 달하를 연주했다.

문수암 산사음악회는 작지만 알찬 것으로 이미 입소문이 났다. 처음 시작 당시 50여 명의 청중이 자리했지만 횟수를 거듭하며, 문수암 마당에는 대중으로 가득 찼다. 또 지리산 깊은 곳 산청 시천면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음악회 당일 문수암을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들로 줄을 이었다.

공연팀이 곡을 마칠 때마다 환호하는 앵콜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비가 계속 내려도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대중은 작은 사찰에서 이렇게 좋은 음악회를 마련했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장종해(부산 · 46) 씨는 "생각보다 사찰 규모는 작은데 50여 명의 합창단과 연주를 이끄는 오케스트라까지 부족함이 없었다"며 "수준 높은 음악회를 마련해 보여준 스님께 감사드리며 임동창 씨의 자유로운 곡 연주를 들으면서 전율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주지 기영 스님은 "문수암은 우화루라는 전각이 꽃비 마당이다. 그래서인지 음악회만 하면 비가 내린다"며 웃어보였다. 이어 스님은 "와주신 모든 대중에게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음악을 준비했으니 감상하시고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